

# 與 국회의장 후보에 6선 조정식... 부의장은 남인순·박덕흠

(與)

(野)

의원 80%·권리당원 20% 합산  
선출배경으로 친명계 조직력 꼽혀  
“속도감·성과 있는 국회”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인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을 선출했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남인순 의원이 선출됐다.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국민의힘에서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국회부의장은 원내 1당·2당이 맡는 것이 관례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최종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투표를 시작했다. 박지원·조정식·김태년(기호순) 후보가 삼파전을 치렀고, 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민홍철 후보가 경쟁했다.

이날 투표에서 조정식 의원은 의원 투표(80%)와 권리당원 투표(20%)를 합산한 결과,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됐다.

정치권에선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명심’(明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작동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하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과 당원들을 적극 공략한 결과란 분석이다.

실제로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하던 1기 시절,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됐다. 국회의장 도전이 점쳐지던 상황에서 정무특보로 위촉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인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에서 조 의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도 친명계 표심 결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의원이 정무특보에서 물러나자 “언제나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던 지난 11일에는 국회의장 경선에 적용된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장은 조정식 의원’이라고 적은 민주당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조 의원이 6선으로 당내 최다선 의원에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한 ‘동정표’가 대거 나왔다는 시각도 있다. 조 의원은 당시 친명계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전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 국회의장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추 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고, 친명계 조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번 경선에서 친명계 결집력을 더욱 강화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아울러 조 의원이 당 사무총장으로서 22대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한 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국회의장 선출에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했지만 변별력은 크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의원들의 표가 조 의원에게 몰리면서 비중이 작은 권리당원 투표가 승패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당선 일성으로 “6월 국회 내 인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빛의 혁명이 어둠을 물리치고 대한민국 정삼화를 이끌었듯 이제 후반기 국회를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는 국회로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6월 내 인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 새 모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22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4선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부의장 후보로 박 의원을 선출했다.

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총 101표 중 59표를 얻었다. 6선 조정식 의원은 25표, 5선 조배숙 의원은 17표를 득표했다.

박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엄중한 시기에 부의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도록은 힘을 다해 전력투구하겠다. 우리는 원팀”이라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與 “규제혁신·예산지원으로 메가특구 육성”

정책위, ‘메가특구’ 공약 발표  
규제 특례·정책 패키지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21일 앞둔 13일 지역균형성장 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 지역에 규제 완화, 재정·세제·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오는 6월 말~7월께 제출하기로 했다.

메가특구는 5구(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역 성장 거점이다.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 제공한다. 기업·지역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규제 특례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해 기업과 지역이 선택하도록 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메뉴판에는 없지만 기업과 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메가특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역의 현장 수요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 응답형 규제특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메가특구 4대 분야 규제 특례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입지·인허가 분야(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 평가 원스탑 승인제 도입 등) ▲산업·기술 분야(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

거티브 규제 전환) ▲노동·인력 분야(국공립대 및 출연연의 겸임·겸직 허가 기준 합리화) ▲정주·교육 분야(거주시설 용도·건축 규제 완화) 등이 소개됐다.

메가특구 7대 정책 패키지로는 재정(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메가특구 우선 투자), 세제(기회발전특구

제도 활용하여 현행 최고수준의 세제혜택 제공), 인재(산학융합지구 확대), 인프라(고밀개발 활성화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지원), 기술창업(창업 도시 조성), 제도(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메가특구 지정·운영·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재정지원·조세감면·신속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예산심의를 통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정책금융, 기반시설 구축 예산 등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재정·금융 지원 기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 발표가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민주당은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특별법·예산 뒷받침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메가특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 “기업 초과이윤 아냐” 李, 국민배당 논란 반박

“국가 초과세수 배당하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이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와 외신에서도 논란을 일으키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관계가 잘못 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가칭 ‘국민배당금’ 설계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뒤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면서 12일 주식 하락의 원인으로 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을 지목했으며 13일에는 야권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은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국민배당을 주장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관련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 국민의힘,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 출범

장동혁 대표 “하나 돼야 할 때”  
원팀 강조하며 보수 결집 호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할 때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아야 국민도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며 원팀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애국시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드린다.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똘똘 뭉쳐야 할 때”

라며 “서로의 작은 차이는 잠시 내려놓고 국민의힘으로 힘을 모아달라.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공동선대위원장인 신동욱·김민수·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과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박민식(부산 북갑)·이진숙(대구 달성)·박종진(인천 연수갑) 후보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